

문영숙의 꼭 알아야 할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38>

러일전쟁과 영일동맹의 배경 일본의 재정난을 해결한 유대인 제이콥슈프



문영숙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은 러시아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일본이 속해있는 백군을 상대로 항일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러일전쟁 때 러시아의 적대국이었던 일본은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다시 러시아 백군과 손을 잡게 되었다. 한인의 병들은 일본이 주적이었으므로 혁명군 편에서 일본을 상대로 싸워야 했다.

이에 앞서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놓고 서로 욕심을 내다가 러일전쟁으로 확대된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만주와 라오둥 반도를 할양받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를 가로막고 나섰다.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이 할양받은 라오둥 반도를 중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만주와 한반도를 통해 해양 진출을 모색하던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대륙 진출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삼국의 요구에 열세를 질감한 일본은 결국 할양받은 라오둥 반도를 내놓고 만다.

삼국간섭을 받아들이는 일본은 대륙 진출의 꿈을 가로막은 러시아에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 러시아는 청나라와 1898년 조약을 맺고 뤄순과 다롄을 조차하여 태평양 함대 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1900년에는 청나라에서 발생한 의화단 사건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만주 전 지역을 러시아 점령하에 두었다. 다급해진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공조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여 철군을 약속받는 역 삼국간섭을 시도했으나 러시아의 의도는 명백했다. 러시아가 계속 남진하여 만주를 장악하

고 코앞에 조선의 북쪽을 장악하여 부동항을 완전하게 관리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더욱 긴장했다. 더더구나 조선의 왕비는 일본을 멀리하고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일본은 결국 을미사변을 일으켜 낭인들을 동원해 명성황후를 시해한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노골적으로 친러정책을 폈다. 일본은 어떻게든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막고 만주진출의 교두보를 러시아에게 빼앗길 수가 없었다.

고종은 러시아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와 외상 고무라 주타로가 교토에 있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별장에 모였다. 이들은 당시 일본의 실세 4인이었다.

네 사람은 그날 회의에서 만주에서 러시아의 우월권을 인정하고 조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되 타결이 되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내용이였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 함대가 조선의 39도선 위를 점령하려고 했다. 일본은 러시아 함대가 일본의 코 앞에 주둔하는 것이 엄청난 위기였다. 러시아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압적으로 일본을 몰아부쳤다. 일본은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되자 1904년 2월 6일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하고 이를 후 일본은 1904년 2월 8일 중국 뤄순(旅順) 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했고 선전포고는 이를 후에 하였다. 1904. 2. 23 일 일본은 서울에 군사를 진입시켜 일일정서를 체결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일본 편을 들도록 하고, 한국의 영토를 일본이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의주도하게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제정은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 때 영국이 일본을 돕고 나섰다. 러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던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었고 뒤이어 일본은 재빨리 미국과도 교섭을 시작했다. 일본 스스로가 막강한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 적당한 시점에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을 끝내주기를 요청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찾아가던 가네코겐타로는 루즈벨트와 하버드 동문으로 둘은 이미 가까운 사이였다. 후에 러일전쟁 강화회담이 포츠머스에서 열린 배경은 바로 이런 인맥 때문이었다.

한편 영국은 영일동맹을 체결한 후, 영국계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500만 파운드를 매입해 주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미국의 유대계 은행가인 제이콥슈프가 이 돈을 매입하고 일본의 전쟁 국제 조달을 위한 주간사 역할까지 자진해서 맡았다. 제이콥슈프는 러일전쟁동안 일본에게 2억 달러를 더 지원하여 총 2억5천 달러를 지원했다. 제이콥슈프가 일본을 지원한 것은 1881년 제정러시아에서 알렉산드르 3세가 유대인을 심하게 박해했고 러일전쟁 당시에 유대인 병사를 총알받이로 전면에 내세운 일이 러시아를 증오하게 되고 일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제이콥슈프는 러일전쟁 후 일본 천황의 초청을 받아 훈장까지 받았다고 한다.

제이콥슈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일본군은 러시아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 러시아의 강력한 함대 발틱함대도 영일동맹의 여파로 긴 항해를 하는 동안 기항지에서 석탄 공급을 받지 못했다. 발틱함대가 대한해협까지 왔을 때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허울 뿐이었고, 일본의 함포 한방에 침몰해 버리고 만다.

그러나 러일전쟁 동안 일본과 미국은 이미 한반도를 자기들의 입맛대로 요리하고 있었다.

참고서적 : 박환 저<시베리아 한인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문영숙 저<독립운동가 최재형>

김영희의 교육에세이

인간은 놀이 DNA를 갖고 태어났다



김영희
CTN/교육타임즈 객원기자

중종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라고 부른다. 하지만 오늘날의 삶을 들여다보면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놀이를 갈망하는 DNA가 자리 잡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놀이는 언제나 삶의 중심에 있었다. 고대 문명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장난감과 게임 도구들, 전 세계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놀이의 형태들은 놀이가 인간의 보편적 특성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아스텍 문명의 '뱀틀리(Patalli)'는 운과 전략을 결합한 보드게임으로 오늘날의 주사위 게임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윷놀이'는 간단한 도구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다. 이처럼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인간은 항상 놀이를 통해 소통하고 학습하며 성장해왔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들은 놀이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임을 밝혀내고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놀이가 뇌의 전두엽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숨바꼭질 게임을 하면서 공간 지각 능력과 전략적 사고를 기르는 것처럼 놀이는 두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놀이는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 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유전학 분야의 발견이다. 연구자들은 인간의 DNA에서 놀이 성향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식별해냈다. 이 유전자들은 호기심, 창의성,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놀이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본성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놀이의 중요성은 아동 발달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예를 들어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체험하며 역할놀이를 통해 사회적 규범과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한다.

놀이의 가치는 성인이 되어서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성인의 놀이는 창의성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한다. 구글, 픽사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직원들의 놀이 시간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 기업은 직원들이 탁구를 치거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놀이의 가치를 종종 간과한다. 끊임없는 업무와 책임감에 짓눌려 놀이를 사치로 여기곤 한다. 이는 본질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에서 놀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 먼저 놀이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필수적인 활동임을 기억해야 한다. 일과 놀이의 경계를 허물어 일 자체를 즐겁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업무에 게임의 요소를 도입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법은 이미 많은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달성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

여하고 이를 통해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놀이 중심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직접 물건을 사고파는 역할놀이를 통해 덧셈과 뺄셈을 배운다. 이는 놀이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의식적으로 놀이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 활동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즐기거나 때로는 아무 목적 없이 자연 속을 거닐어 보는 것만으로도 잃어버린 놀이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 인간의 놀이 중심 DNA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놀이는 창의성의 원천이며 혁신의 씨앗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창의성과 혁신 능력이다.

놀이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레고와 같은 블록 놀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공간 지각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준다. 놀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준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놀이를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놀이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함으로써 더 창의적이고 행복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간의 DNA에 새겨진 놀이 본능을 존중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호모 루덴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놀이하는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자 미래다.

현대 창업주 회자 일대기 (9)

정주영의 출신수범 리더십



리채운
CTN/교육타임즈 논설위원

자수성가형 사업가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바로 정주영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세계 어느 곳을 다녀왔더라도 국내에 도착하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곤 했으며, 피곤을 풀기 위한 시간을 달리 가져 본 일이 없었다. 출산에 머물 때는 새벽 4시엔 숙소에서 나와 2시간 동안 현장 구성원들을 살살이 한 바퀴 돌아보고 6시엔 간부회의를 소집하곤 했다.

그는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도 그의 원기 왕성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자신의 사업과 일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더욱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끈기와 각오,

강한 정신력으로 성공을 향해 자신을 내몰아 간다. 그들은 오히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경우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끈기가 도저히 안 되는 일에서조차도 손을 놓으려 하지 않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성공에 대한 목표는 그대로 두고 길만 바꾸면 된다. 사업가는 몇 가지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데 마음을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특정한 수단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실현 가능 하나 불가능 하나하는 문제는 시장과 행운에 맡긴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자신들이 성공할 것이라고는 꿈도 못 꾸었던 사람들로 가득하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끈기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왜냐하면 재주를 갖는 것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천재 이야기는 흔하다 못해 거의 격언이 될 지경이다. 또한 이 세상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낙오자들이 무수히 많다. 결국 제주도 천재도 교육도 아닌, 오직 끈기와 각오만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밀어붙여'라는 슬로건이 인류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왔고 또 풀어갈 것이다. 비즈니스의 주요 성공 요인(Key Success Factors)으로는 성공하게

다는 정신력인 '할 수 있다는 정신'(Can Do It Spirit)이 중요하다. 정주영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 또한 이러한 끈기와 각오이다.

정주영의 조직관리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는 혼연일치의 리더십의 대가는 단연 정주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주영은 보스로서 탁월한 인간적인 매력력을 갖고 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벉을 느끼지 않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다. 사석에서 늘 솔직담백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라든가 대화주제를 막론하고 격의 없이 동화된다는 점 말고도, 정주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힘이 있다. 앞장서서 자신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도 애써하거나 낯설지 않게 한다.

그는 자신이 배고픈 고생을 해보았고 막노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 근로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들의 단순함과 우직함을 좋아했다. 정주영은 청소년 시절 씨름을 잘하는 장사였고, 축구, 야구, 배구, 테니스 등에 만능선수였다. 그는 임직원과 친선경기를 가졌을 때도 항상 앞서 뛰고 팀워크를 지휘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

는 함께 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훈훈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정과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유머감각이 있었다.

정주영은 항상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매 사업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감함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진출을 망설일 때, 과감히 승부수를 던져 일사불란한 리더십으로 전 임직원을 이끌었다.

그는 한 번 사람을 신임하면 절대 버리지 않았으며, 언젠가 반드시 중용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좋아 능력에 맞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그를 진심으로 우러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를 위해서 '충성'을 하였다.

정주영은 언제나 현장 방문 때 형식과 의전을 갖추는 법이 없고, 차트나 서류로 보고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불쑥 나타나 현장을 시찰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방문 예정일 며칠 전부터 방문이 끝날 때까지 온통 초긴장 상태가 유지된다. 이처럼 정주영의 경영 스타일은 형식에 매이지 않고 현장 확인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조직은 항상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주영은 특유의 발탁 인사로 유명했

다.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는 도중 부장을 '이사'로 호칭해 다음 날짜로 그 부장을 이사로 승진시킨 적도 있다.

정주영은 그러나 결코 실수로 호칭을 부른 적이 없다. 그는 이미 그 사람의 능력과 충성심 등을 확인해 본 뒤 과격적인 조치를 단행하는 충격요법을 즐겨 사용했다. 그만큼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애정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 발탁한 인재에 전폭적인 신임과 혜택을 줬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충성심을 유발시키는 '상성 전략'을 주로 사용했다. 정주영은 생존 시 이미 '살아 있는 전설'이 됐는데, 바로 이 같은 특유의 인재 경영과 조직 장악력이 한몫을 했다.

1976년, 각고의 노력 끝에 사우디의 주베일 산업용 공사를 수주했을 때의 일이다. 현대는 당시 사우디 해군의 육상 및 해상기지와 주택성 발주의 주택 전용 항공공사도 수주하여 가까운 지역 내에 함께 18억 달러 이상의 대형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

정주영은 바레인 공사를 수주한 즉시 중동공사 전반에 걸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중동회의'를 설치 운영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회의를 주재하여 인원의 선정, 동원, 송출, 그리고 자재, 장비의 구매, 전송, 식량의 보급 등 전반에

걸쳐 이 회의에서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고 곧 실행하여 확인하는 강력한 체제를 수립하고, 한편으로는 울산조선소에 중동지원분부를 두어 후방보급기지로 활용하는 등 마치 서막의 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큰 역사를 추진했다.

정주영이 총사령관이 되어 회사 주요 경영간부가 참모로 보좌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각급 각지에 나가서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소장들이 일선 지휘관이 되어 그의 지시와 결정을 따라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집행했다. 현대의 업종이 건설, 중공업, 자동차 등 중후장대(重厚長大)하고 남성적 측면이 강한 사업현장에서 노사문제로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정주영은 "노사는 적대의 관계가 아니라 한술밥을 먹는 가족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항상 집단의 큰 형님처럼 종업원들을 대했다.

또 "비운 후의 땅이 더욱 굳어지듯 종업원을 아낀다"며 경쟁력 있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 원천인 인재양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선발된 인재들에게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